

김해(金楷) 역학계몽복역(易學啓蒙覆繹)의 철학적 검토

- 주석의 체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이 창 일*

- I. 『역학계몽』의 도입
- II. 저자와 문헌
- III. 『역학계몽복역』 주석의 내용과 특징
 - 1. 체제
 - 2. 「본도서(本圖書)」 주석
 - 3. 「원괘획(原卦畫)」 주석
 - 4. 「명시책(明蓍策)」 주석
- IV.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비교적 최근에 조명되기 시작한 조선 후기의 역학자 김해가 저술한 『역학계몽복역』의 체제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저술은 성리학의 역학이론서인 『역학계몽』과 『계몽전의』를 주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김해의 행적과 『역학계몽복역』의 체제를 간략히 검토하고, 뒤이어 『역학계몽복역』의 주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3부분으로 나누어 탐색하였다. 김해의 주석 방향은 주자의 논리를 이해하고 강화하는 원론적인 형식을 따른다. 그러

*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 gulgun@aks.ac.kr

나 이는 무비판적인 수용의 태도가 아니라, 논리에 입각하여 주자의 학설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주자의 논리에 정합성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정합성이 보존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리를 통해서 새로운 설을 주장한다. 이러한 점을 보면 김해는 권위에 의존한 주석이 아닌 논리 즉 역리(易理)에 입각한 주석을 진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김해는 당시 유자들과 교류를 통해서 자신의 주석 방향이나 학설에 대한 평가를 원했다.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 주제어

김해(金楷, 1633~1716), 역학계몽복역(易學啓蒙覆繹), 역학계몽(易學啓蒙), 계몽전의(啓蒙傳疑), 주석, 역리(易理)

I. 『역학계몽』의 도입

이 글은 조선 후기의 역학자 김해(金楷, 1633~1716)가 『역학계몽(易學啓蒙)』(이하 『계몽』)과 『계몽전의(啓蒙傳疑)』(이하 『전의』)를 주석하면서 저술한 『역학계몽복역(易學啓蒙覆釋)』(이하 『복역』)의 체제와 내용을 검토하면서,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계몽』은 남송의 주희(朱熹, 1130~1200)와 채원정(蔡元定, 1135~1198)이 선천역(先天易)에 입각해서 역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방식을 제시한 저술로서, 이후 역학사를 통해 성리학의 역학 담론을 형성하였다.

『계몽』은 『성리대전(性理大全)』을 통해서 도입되었고, 세조(世祖)시기부터 연구가 되어 왔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이황(李滉, 1501~1570)의 『전의』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전의』는 『계몽』에 대한 본격적인 주석이 아니라, 이황이 쓴 「서문」에서처럼 전문(傳文)과 주석(註釋)의 의문 나는 부분들에 대한 메모와 기록을 모아 놓은 것이다.¹⁾ 그래서 『전의』는 『계몽』의 특정한 부분을 취사선택해서 주해한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문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 비유하자면, 개념과 구절에 대한 ‘전문 주석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계몽』의 이해를 위한 저술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초학자가 아닌 『계몽』의 문장에 익숙한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방식은 향후 조선에서 『계몽』 이해에 대한 일정한 표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김해의 『계몽』 주석은 『계몽』 자체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전의』에 대한 주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계몽』의 「고변점(考變占)」 편을 제외하고는 전문에 대한

1) 「啓蒙傳疑序」, 『啓蒙傳疑』. 이수(理數)의 학문은 너무 넓고 미묘하며, 복잡하고 착란하여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 ... 이러므로 의혹이 일고 난해한 것들 중에 또 의혹이 일고 난해한 것이 생겨나고, 주해(註解) 속에 또 주해를 해야 한다. 은미하고 심오한 의미같은 것은 밝히지 않을 수 없고, 전해진 인본(印本)의 오류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며, 곱하고 나누는 수리법도 상세하지 않을 수 없다(理數之學, 廣博微妙, 盤錯肯綮, 未易研究. ... 是以. 疑難之餘, 重生疑難. 註解之中, 又須註解. 至於隱奧之義, 有不得不明. 傳印之譌, 有不可不正. 乘除之法, 又不可不詳).

주석을 하고 있지만, 『전의』는 선별적인 주석을 하고 있다.

『복역』은 학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자와 『복역』의 주석에서 보이는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에 만족하고 향후 진전된 연구를 기대한다.

II. 저자와 문헌

김해는 호가 부원당(負暄堂)이며, 안동에서 태어났다. 「연보」에 따르면, “28세인 1660년(현종1) 생원시에 1등으로 합격하여 명성이 자자했으나 명리(名利)에 담박하여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부모에게 효양을 다하며 지냈다.”²⁾고 했으니, 포의한사(布衣寒士)이다. ‘부원당’이라는 당호는 김해의 심경(心境)을 잘 보여준다. 본래 ‘부원(負暄)’은 햇볕을 등에 쏘여 따뜻함을 즐기는 것인데, 송나라의 가난한 농부가 봄볕에 등을 쏘면서 세상에서 이보다 따스한 것은 없으리라 생각하고서 임금에게 사죄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자신은 재야의 야인으로 살면서 겨우 햇볕에 등을 쏘여서 사는 궁핍한 처지지만, 임금과 조정의 안위를 위한 충언을 가진 선비라는 것을 말한다.³⁾ 말하자면, 따뜻한 햇볕을 쏘여 왕께 올리는 헌폭지성(獻暴之誠)은 군자의 임무이기 때문이다.⁴⁾

저술로는 시문을 모은 『부원당집』이 있고, 특히 『두시주해(杜詩註解)』와 『역학계몽복역』 등이 있는데, 후자가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복역』은 언제 저술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전하는 시문들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을

2) 정종로 찬(김의목 번역), 「행장」, 『국역 부원당선생문집(곤)』(부원당공과 화수회, 2012) 참고.

3) 「負暄堂記」, 『국역 부원당선생문집(곤)』, 77~78쪽.

4) 『孟子』「告子上」 9장. 비록 잘 자라는 식물이라도 하루 볕을 쏘이고 열흘 춥게 하면 잘 자라는 나무는 없다(雖有天下易生之物也, 一日暴之, 十日寒之, 未有能生者也). 임금이 현신을 멀리 하고 간신을 가까이 하면 정치가 안 된다는 뜻을 비유함. 「負暄堂記」, 78쪽.

것 같다. 김해는 평소 김창협(金昌協, 1651~1708)과 교우가 깊었는데, 김해가 18세 연상이었다. 김창협의 시에서

住處雲山幾疊青	깊디깊은 청산 속에 머물러 지내던 몸
郡齋爲客見新萸	군재에 손님 되어 새 철을 만났다네
紫芝商嶺知高興	상령의 자지가(紫芝歌)라 높은 흥취 알았고
白首玄經惜暮齡	백발로 현경(玄經) 공부 노령이 안타깝네
欲把龜圖參乙乙	거북 그림 잡고서 심오한 뜻 탐구하고
不禁鴻意已冥冥	기러기 뜻 지니고 허공 높이 난다네
風江永日紛離恨	강변의 긴긴 날에 이별 한이 어지럽다
載酒何時問草亭	그 언제 술을 싣고 초정을 찾아갈꼬 ⁵⁾

이 시가 지어진 때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김창협이 1687년(37세) 11월에 청풍부사(淸風府使)로 나가고, 그 직을 사임한 뒤 귀향한 1689(39세) 2월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⁶⁾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하자면, 시의 주석에는 상주(尙州)에서 은거하는 김해가 3월에 청풍 부사의 거쳐 즉 “군재”로 와서 함께 있다가 “새 철을 만났다네” 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보면, 김창협이 청풍부사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함께 지내다가, 1688년 4월 이전에 김해를 상주로 떠나보내면서 지은 시로 보인다. 당시 김해의 나이는 56세였다. 그래서 시에서 “백발로 현경(玄經) 공부 노령이 안타깝네”라고 했다. 당시 『계몽』에 대한 주석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와 함께 김창협과 주고받은 편지 가운데 『복역』에 대한 것을 참고해 본다.

『복역』을 보내주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스스로 생각건대 저는 식견이 좁아서 그 설을 들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계몽』을 읽어 조금

5) 「구곡집(龜谷集)을 읽다가 청(靑) 자 운을 얻어 여럿이 함께 시를 짓다. 김진사(金進士) 해(楷)를 주제로 삼았다」, 『농암집』3권. 『구곡집』은 조선 후기의 여항시인 최기남(崔奇男, 1586~1669)의 시집.

6) 「연보상」, 『농암집』권35.

이라도 그 맛을 본 뒤에 참고하여 의심스러운 것을 증명해 보면 그런대로 생각하는 이득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기가 쉽지 않고 이 책은 또 오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 우선 한 본을 베껴두고 원고를 돌려드리고 싶은데, ... 제 아우와 권을 나누어 읽어 보고 의견이 있는 곳마다 찌를 붙여 표시하기로 하여 며칠 동안 작업을 하였으나 절반도 하지 못하였고, ‘시책(蓄策)’ 한 권은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였습니다. ... 감히 이 책의 대체를 논해 보자면, ... 찌 중에 「본도서」 부분에 붙인 것은 저의 설이고 「원패획」 부분에 붙인 것은 창흡(昌翕)의 설입니다. 그중에 또 제천(堤川) 문관 박수검(朴守儉)의 설도 있는데, 이는 그 찌마다 별도의 표시를 하였으니 보실 때에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⁷⁾

편지를 보낸 1690년은 김해가 58세이고 김창협이 40세인 해이다. 김창협은 당시 사직하고 영평(永平, 포천)의 응암(鷹巖)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전 해인 1689년(숙종 15년) 기사환국(己巳換局)이 일어나 남인이 재집권하자 부친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이 사사(賜死)된 뒤로 세상에 나갈 뜻을 버렸기 때문이었다. 위 편지에서 『복역』이 등장하는데, 이는 청풍부사 시절 김해가 손수 들고 절정을 바랬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김창흡(1653~1722)과 박수검(1629~1698) 등이 열람하고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김창협은 『계몽』에 대한 특별한 연구를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김해는 그의 학식을 믿고 저술의 초고를 검토 의뢰한 것이다. 김해는 김창협과 예설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시를 화답했다. 세수 84세로 생을 마쳤는데, 연하의 김창협은 이미 죽고 없었다.

지금 전해지는 『복역』은 1899년에나 와서야 6권 4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되고, 『부원당문집』도 2012년에 국문으로 간행되었다. 『복역』에 대한 연구는 『계몽』 주석서 소개나 고서 해제 등에 등장하였지만, 그 학술적 의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⁸⁾

7) 「김진사(金進士) 해(楷)에게 보낸 경오년(1690)」, 『농암집』17권.

8) 이선경의 연구에서 소개된 것이 유일한 것이라 보인다. 여기서는 김해의 사상사적 위치를 제시하고 있다. “퇴계학과 『역학계몽』 연구에 있어서 조선후기의 주요 저자들

III. 『역학계몽복역』 주석의 내용과 특징

1. 체제

『복역』의 체제는 형식적으로 2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석의 대상이 되는 『계몽』 부분과 김해의 주석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의 『계몽』은 세종 원년(1419)에 도입된 『성리대전』 속에 포함된 것이며, 이는 주자가 지은 『계몽』에 대한 이후 주자학자들의 세주를 포함한 것이다.⁹⁾ 그리고 조선에서 『성리대전』본의 『계몽』은 역학에 관심이 많았던 세조(世祖)가 동궁 시절에 『역학계몽』에 대해 주석을 하여 『역학계몽요해(易學啓蒙要解)』(이하 『요해』)를 지었고, 왕이 되자 최항(崔恒, 1409~1474)과 한계희(韓繼禧, 1423~1482)에게 명을 내려 이전 저술을 보완한 『역학계몽보해(易學啓蒙補解)』를 짓게 한다. 김해를 이것을 『복역』의 『계몽』 부분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전의』를 삽입했다. 따라서 주석의 대상은 주자와 채원정의 『계몽』, 옥재(玉齋) 호씨(胡氏) 등의 세주가 포함된 『계몽』 주석들, 세조의 『요해』와 『역학계몽보해』, 이황의 『전의』 등이다.

이 가운데 세조의 두 저술은 『계몽』의 세주에 포함시켰으며, 『전의』는 세주보다 큰 글씨를 써서 구분했다. 김해는 자신의 의견을 “안(按)”이나 “해안

이 대체로 ‘김성일-장흥효-이현일-이재-이상정’으로 이어지는 퇴계학의 호파(虎派)에 속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이상정의 문파와 관련이 있다. 김해의 경우는 이상정보다 앞 시기의 인물이나, 『역학계몽복역』을 통해 드러나는 김해의 학문적 성격은 주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기부잡불리의 균형적 인식을 도모하였던 이상정의 학문과 상통하는 듯하다. 또한 김해의 행장을 이상정의 문인인 정종로가 쓴 것으로 보아, 그 학문적 친연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선경, 「퇴계학파의 『역학계몽』 이해」, 『양명학』 28(한국양명학회, 2011), 294쪽.

- 9) 『성리대전』에 포함된 『역학계몽』의 세주를 이루는 주자 이후의 학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玉齋胡氏 胡方平(生卒未詳),의 『易學啓蒙通釋』, 호방평의 아들인 雙湖胡氏 胡一桂(1247~?)의 『易學啓蒙翼傳』, 雲峰胡氏 胡炳文(1250~1333)의 『易本意啓蒙通釋』 등이 있다. 또한 明의 永樂年間(1403~1424)에 『易學啓蒙通釋』, 『易學啓蒙翼傳』, 黃瑞節이 엮은 『朱子成書』를 모아서 『易學啓蒙附註』를 편찬했다.

(楷按)”으로 표시했으며, “중안(重按)”이나 “우위(愚謂)” 등의 표시를 하기도 했다. 이는 “안”의 표시가 초고에 해당하고, 후일 계속 개고하면서 “중안”으로 표시한 것 같다. 그리고 “우위”는 앞서 김창협, 김창흡, 박수검 등이 개진한 의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 가운데 박수검에 대한 의견은 주석에 나타나지 않았다.

『복역』은 외형상 기존 『계몽』에 포함된 모든 주석과 도해(圖解), 조선의 주석(세조, 이황) 등이 포함되어 방대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계몽』의 「고변점」 부분에 대한 주석은 없는데, 미완성인지 일실된 것인지 이유를 알 수는 없다. 여러 주석서들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도상(圖像)과 도설이 상당한 양인데, 그 제목이 부정확하거나 밝히지 않은 것이 많다. 가령, 『전의』에는 나타난 도상의 제목이 온전히 옮겨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김해가 밝히지 않은 것인지 후인들의 간행 과정에서 생겨난 오류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교감(校勘)이 필요한 사항이다.

『계몽』은 「본도서」, 「원괘획」, 「명시책」, 「고변점」 등의 4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복역』에서는 「본도서」(권1), 「원괘획」은 상하로 구별하여 권3과 권4가 되고, 이어 「명시책」도 상하로 나누어 각 권5와 권6이 된다.¹⁰⁾

서명에 등장한 “복역”은 특별한 전고를 찾을 수 없지만, 그 의미는 ‘주석’을 뜻하는 것이라 본다. 곧 복역의 복(覆)은 번(翻)과 같은 글자로 뒤적이고 들추어내는 뜻이 있기 때문에 탐색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역(繹)은 실마리(단서)를 찾는다는 뜻이 있다. 그래서 “복역”은 역의 심오한 뜻을 가만히 뒤지고 들추어서 단서를 찾아본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2. 「본도서(本圖書)」 주석

「본도서」는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의 근원을 해명하는 목적을 가지

10) 「序」는 畿湖 남인학자로 분류되는 許傳(1797~1886)이 1878년(戊寅) 썼으며, 「跋」은 1899년(己亥) 후손 金興洛과 金鴻圭가 썼다.

고 있다. 『주역』 「계사전(繫辭傳)」의 “황하에서 그림이 나오고 낙서에서 글이 나왔다”장과 “천지지수(天地之數)”장을 중심으로 「하도」와 「낙서」의 내용을 전개했다. 이로부터 성리학의 주역 담론을 형성한 주제들이 출현한다. 예컨대, 「하도」와 「낙서」의 기원 문제, 「하도」의 수(數) 10과 「낙서」의 수 9, 「하도」의 수 위치와 오행(五行)의 배합, 「하도」와 「낙서」의 위(位)와 수는 왜 다른가, 「하도」와 「낙서」에 5가 가운데 있는 이유, 5의 수리적 의미 등을 꼽을 수 있다.¹¹⁾

김해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표준적인 설명들을 수용하지만, 정확한 이유에 대한 나름의 자득(自得)을 추구하고 있었다. 다음은 「하도」와 「낙서」가 자연지도(自然之道)에 따른 것이며 인위적인 도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김해의 입증이다. 김해를 이를 위해서 자연수의 성립과 「하도」의 도상적 표현의 일치를 음양론에 입각한 수리로 설명한다.

「하도」가 수를 얻는 것은 모두 자연이연(저절로 그러해서 그러한 것)이다.¹²⁾

「하도」의 수에 대한 자연주의적 해석이며, 이는 성리학적 『주역』 이해의 대전제이다. 이어 음양의 본래적 성질에 대해서 논의한다. 음양 역시 ‘자연이연’의 자연주의적 질서에 속한다.

대개 음양의 생(生)은 양은 아래이고 음은 위이며, 양은 좌이고 음은 우이고, 양은 먼저이고 음은 나중이다. 그래서 양이 먼저 아래에서 생겨나니 처음에는 1개이므로 한 점을 이루고 그것을 1이라 한다. 음은 다음에 위에서 생겨나 아래로 두 점을 쌓고 2개가 되니 두 점을 이루고 그것을 2라 한다. 양이 또 왼쪽에서 생겨나니 아래와 위에 두 점을 쌓고 3개가 되니 세 점을 이루고 3이라 한다. 음이 또 오른쪽에서 생겨나 아래 위 왼쪽 등에 석 점을 쌓고 4개가 되

11) 주희 지음(김상섭 해설), 「하도와 낙서의 근본」, 『역학계몽』(예문서원, 1996), 35~85쪽 참고.

12) 『易學啓蒙覆釋』 「本圖書」. 按河圖之所以得數者, 皆自然而然.

니, 네 점을 이루어 4라 한다. 양이 또 가운데서 생겨나 위아래 왼쪽 오른쪽 등에 네 점을 쌓고 5개가 되니, 다섯 점을 이루어 5라 한다. 이 1·2·3·4·5가 ‘가운데 5[中五]’를 이루니, ‘가운데 5’가 1·2·3·4·5의 상이 되는 것이다.¹³⁾

「하도」의 수가 자연지도에 따라서 생성되는 과정을 음양론과 중(中)의 원리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기존 설명 방식과 다른 김해의 독창적 견해이다. 「하도」의 가운데 ‘다섯 점’으로 이루어진 숫자 5의 생성과정은 1부터 5까지 음양론에 적용을 받는다. 음양의 상하좌우 분별에 따라 5까지의 수가 생성되고 이는 중오(中五)의 상이 되어 1~5를 생성시키고, 이어 6~10의 자연수도 같은 원리에 따라 생성시킨다. 이를 도설로 표현했는데, 김해가 직접 그린 것 같다.

그 외부의 1·2·3·4·5는 ‘가운데 5’의 1·2·3·4·5를 따라서 그 바깥에 저절로 붙으니,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 같다. 생각건대 ‘가운데 5’의 아래 한 점은 1이 되니, 바깥 한 점도 그 곁에 붙는다. 위 한 점은 2가 되니 바깥 점도 그 곁에 붙는다. 왼쪽 한 점은 3이 되니, 바깥의 세 점도 그 바깥에 붙는다. 오른쪽 1점은 4가 되니 바깥의 네 점도 그 바깥에 붙는다. 가운데 한 점은 5가 되니, 바깥의 다섯 점도 그 곁에 붙는다. 이것이 그 바깥의 1·2·3·4·5가 ‘가운데 5’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가운데 5’가 그 바깥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뒤 또 아래에서 시작하니 다음은 6이 되므로 여섯 점이 그 바깥에서 생겨난다. 또 위에서 생겨나니 7이 되는 차례이므로 일곱 점이 그 바깥에서 생겨난다. 또 왼쪽에서 생겨나니 8이 되므로 여덟 점이 그 바깥에서 생겨난다. 또 오른쪽에서 생겨나니 9가 되므로 아홉 점이 그 바깥에서 생겨난다. 또 가운데서 생겨나니 10이 되므로 열 점이 그 바깥에서 생겨난다. 이것이 그 바깥에 6·7·8·9·10이 ‘가운데 5’에 따라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냈다.¹⁴⁾

13) 『易學啓蒙覆釋』「本圖書」. 蓋凡陰陽之生, 陽下陰上, 陽左陰右, 陽先陰後, 故陽先生於下, 則初是一箇, 故成一點而謂之一. 陰次生於上, 則積下一點而爲二箇, 故成二點而謂之二. 陽又生於左, 則積下上二點而爲三箇故成三點而謂之三. 陰又生於右, 則積下上左三點而爲四箇, 故成四點而謂之四. 陽又生於中, 則積上下左右四點而爲五箇, 故成五點而謂之五. 此一二三四五之所以成中五, 而中五之所以爲一二三四五之象也.

14) 『易學啓蒙覆釋』「本圖書」. 其外之一二三四五, 則隨其中五之一二三四五, 而自附於其

‘가운데 5’[中五]가 「하도」의 수를 생성시키는 원리라는 설명은 주자에게서 찾을 수 있지만, 이것을 연역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름의 설명원리로 만든 것은 김해의 자득에 따른 것이다. 「하도」와 「낙서」에 표시된 상(象)이 인위가 아닌 자연지도에 따른다는 것은 상이 수리적 원리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

대개 이 그림은 인간의 힘으로 안배할 수 없는 것이고, 음양의 수로 순서를 세니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백천만억의 무궁한 수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고, 아래는 매번 1과 6, 위는 매번 2와 7, 왼쪽은 매번 3과 8, 오른쪽은 매번 4와 9, 가운데는 매번 5와 10이 되니, 이는 모두 ‘가운데 5’로 세서 얻은 것이다. 신묘하고 신묘하도다! 주자가 ‘중이 5가 되는 까닭은 각각 다섯 개의 생수(生數)의 상을 갖춘 것’이라 했는데, 일찍이 반복해서 사유해도 그 연유를 몰랐었다. 이 말이 그 가운데의 다섯 점이 각기 가리키는 바가 있는 것에 불과한지, 그 바깥의 5에 대해 말한 것인지. 이제 이 뜻을 얻은 뒤에 비로소 그 말이 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주자가 일찍이 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을 몰랐다가, 이처럼 알 수 있었다! 주자는 일찍이 1·2·3·4로 말미암아 6·7·8·9를 볼 수 있는 것이 매우 묘하다 했는데, 이제 ‘가운데 5’에 말미암아 1·2·3·4·5를 볼 수 있으니 또한 극히 묘하다.¹⁵⁾

傍, 如影之隨形, 蓋中五之下一點爲一, 故外一點又附於其傍, 上一點爲二, 故外二點又附於其傍, 左一點爲三, 故外三點又附於其傍, 右一點爲四, 故外四點又附於其傍, 中一點爲五, 故外五點又附於其傍, 此其外之一二三四五, 所以因中五而生, 而中五之所以爲主於其外也. 然後又始於下則次當爲六, 故六點生於其外, 又生於上則次當爲七, 故七點生於其外, 又生於左則次當爲八, 故八點生於其外, 又生於右則次當爲九, 故九點生於其外, 又生於中則次當爲十, 故十點生於其外, 此其外之六七八九十, 所以因中五而生也, 茲見于圖.

- 15) 『易學啓蒙覆釋』「本圖書」. 蓋此圖不容人力安排, 而以陰陽數次計之, 則不得不爾也. … 以至百千萬億之無窮, 無不皆然, 而下每爲一與六, 上每爲二與七, 左每爲三與八, 右每爲四與九, 中每爲五與十, 此皆以中五計之而得者也. 妙哉妙哉. 朱子謂中之所以爲五者, 各具五生數之象, 嘗反覆思惟而莫知其所由, 謂不過以其中之五點, 各有所指, 於其外之五者而云然爾, 及得此義, 然後始覺其所言之妙, 然朱子未嘗說得盡, 未知其意, 亦如此看得耶. 朱子嘗因一二三四便見六七八九極妙, 今因中五便見一二三四五亦極妙.

김해의 자득은 생수(生數, 1·2·3·4·5)로 인해 성수(成數, 6·7·8·9·10)가 생겨난다는 기존의 논의에 더해서, 생수의 성립을 ‘가운데 다섯 점’의 상(象)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수의 성립 그 자체에 대한 설명논리라는 점에서 독특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낙서」에 대한 김창협 의문에 대한 답을 살펴본다. 먼저 김해는 「낙서」의 수리(數理)를 아래처럼 말하고 있다.

「낙서」가 수(數)되는 것은 「하도」와 같지 않다. 그 가운데가 5가 되는 것은 각기 5 기수(奇數)의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기수로 기수를 가린 것을 말한다. 대개 ‘가운데 5’가 사정(四正)을 가리키는 것은 모두 한 점으로 기수이다. 그래서 그 바깥에 붙는 것은 모두 기수이다. 사우(四隅)를 가리키는 것은 모두 두 점이니 이는 우수(偶數)이다. 그래서 그 바깥에 붙는 것은 모두 우수이다. 기수로 기수를 가리키고, 우수로 우수를 가리키는 것 또한 상을 본 받은 것이니, 이른바 ‘각각 5 기수의 상을 가진다’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비록 10이 없어도 10을 양 바깥에 나누니 10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나누어 지는 것이 기수이면 나머지도 기수이고, 나누어지는 것이 우수이면 나머지도 우수이니, 기수로 기수를 짝하고 우수로 우수를 짝하는 것이 음양의 구별이라 매우 엄격하다. 가운데 5를 두면 중형으로 15의 수가 되고, 가운데 5를 비우면 좌우가 10에서 쪼개진 수(즉 둘을 합하면 10이 되는 수)가 되어, 사방에 두루 있는 것이 “각각 6·7·8·9를 머금고” “서로 7·8·9·6이 된다.” 그로써 10이 되고, 또한 15의 수가 되니, 이것이 변화의 묘함이다.¹⁶⁾

「낙서」의 수리는 10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와 다르게 보이지만, 그 수리의 자연주의적 성격은 유지된다. 곧 「낙서」처럼 ‘가운데 5’로부터

16) 『易學啓蒙覆釋』 「本圖書」. 洛書之所以爲數者, 不與河圖同, 其中之所以爲五者, 各具五奇數之象者, 謂其以奇而指奇也. 蓋中五之指四正者, 皆一點是奇也, 故其外之所附者皆奇也, 指四隅者皆二點是偶也, 故其外之所附者皆偶也, 以奇而指奇, 以偶而指偶者, 亦有法象, 則所謂各具五奇數之象者, 有由然矣. 雖無十而分十於兩傍則未嘗無十也, 所分者奇則所餘者亦奇, 所分者偶則所餘者亦偶, 以奇而對奇, 以偶而對偶, 陰陽之別, 甚嚴矣. 存五則爲縱橫十五之數, 虛五則爲左右分十之數, 周於四方者, 各含六七八九, 而互爲七八九六. 以之成十, 而亦成十五之數, 此變化之妙也.

생수와 성수가 생겨난다. 생수(1~4)는 상을 보면 성수(6~9)를 “머금고(含有)”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수는 ‘가운데 5’와 “서로 결합되어 생겨난다(互爲).” 「낙서」는 수리의 패턴에 있어서 가운데 5를 제외하면 가로와 세로 및 대각선의 합이 10이 되고, 5를 포함하면 가로와 세로 및 대각선의 합이 15가 된다. 이러한 ‘마방진’의 수리는 「낙서」가 가진 특징이다. 김창협은 역리(易理)에 대한 것 보다, 글의 일관성에 대해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김창협이 말했다. 이미 ‘각각…머금음(各含)’이라 하고 또 ‘서로 합해 됨(互爲)’라고 말한 것은 어찌 두 가지 뜻이 아니겠습니까?¹⁷⁾

김창협은 생수와 성수의 성립에 대한 김해의 설명논리가 이해되지 않고, ‘함유’나 ‘호위’는 같은 말을 하는 것인데, 굳이 분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묻는다. 문맥상 어차피 성수(6~9)에 대한 설명인 것에 불과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수와 성수의 위(位)가 다른 것은 그것이 갖는 수리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 답한다.

나는 ‘각함’ ‘호위’의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한 것을 이렇게 말한다. 흰색으로 된 점 하나가 ‘가운데 5’의 아래에 있는 것은 6의 상을 머금고, 세 점이 ‘가운데 5’의 왼쪽에 있는 것은 8의 상을 머금는다. 흑색으로 된 점 둘이 ‘가운데 5’의 서남쪽에 있는 것은 7의 상을 머금고, 네 점이 ‘가운데 5’의 동남쪽에 있는 것은 9의 상을 머금는다. 이 4가지 위(位)는 각각 그 위(位)에서 머금는 것이고 아직 이룬 것은 아니다. 흰색으로 된 7은 곧 흑색으로 된 2와 5가 이룬 것이고, 9는 흑색으로 된 4와 5가 이룬 것이며, 6은 흰색으로 된 1과 5가 이룬 것이고, 8은 흰색으로 된 3과 5가 이룬 것이다. 이 네 위(位)는 음양이 서로 구해서 ‘호위’가 된 것이다.¹⁸⁾

17) 『易學啓蒙覆釋』「本圖書」. 農巖曰. 旣曰各含, 而又曰互爲者, 豈有兩般義否.

18) 『易學啓蒙覆釋』「本圖書」. 愚謂各含互爲有兩般意, 白圖之一點在中五之下有含六之象, 三點在中五之左有含八之象, 黑圖之二點在中五之西南隅, 有含七之象, 四點在中五之東南隅, 有含九之象. 此四位則各於其位含而未成者也, 白圖之七乃黑圖二五之所成也, 九乃黑圖四五之所成也, 六乃白圖一五之所成也, 八乃白圖三五之所成也, 此四

생수가 성수의 가능성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의 성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생수는 음양이 상호 결합하여 성립하는 성수와 다른 수리적 차이가 있다. 이러한 미세한 지점에 대한 김해의 설명은 자못 집요해 보인다. 위의 인용에서 조차 1을 설명한 뒤에 2가 아닌 3을 설명하고, 이어 2와 4를 설명한 것은 그것이 음양기우(陰陽奇偶)의 수이기 때문이다. 먼저 양수(1,3)을 설명하고, 이어 음수(2,4)를 설명하고 있다. 음양수리론에 대한 김해의 논리적 정합성에 대한 추구는 상수학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김창협과 나눈 논의는 이 한 조목이 유일하고, 다시 찾을 수 없다.

3. 「원괘획(原卦畫)」 주석

「원괘획」은 주로 소강절(邵康節, 1011~1077)의 「선천도」와 「후천도」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 편의 목적은 「선천도」가 전통적 유래가 있으며, 이를 성립시킨 논리가 자연지도에 입각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팔괘(八卦)와 64괘(卦)가 이진법적 획괘(畫卦) 원리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논리는 성리학의 『주역』 담론에 핵심이 되었고, 주역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다. 팔괘의 획괘원리, 여러 「선천도」(「복희팔괘차서도」, 「복희64괘차서도」, 「복희팔괘방위도」, 「복희64괘방위도」, 「문왕팔괘방위도」, 「문왕팔괘차서도」)의 구성과 성립원리 등을 논의한다.¹⁹⁾

「원괘획」에서 김해는 비판적 논의를 진행한다. 옥재 호씨의 설을 주로 비판하고, 『요해』의 오해 등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주자의 설조차 의문을 제기한다. 옥재 호씨에 대한 비판의 한 예는 다음과 같다.

옥재 호씨는 건순동지(강건, 유순, 움직임, 멈춤)이 ‘신명의 덕’에 속하고,

位則乃陰陽之相求而互爲者也.

19) 주희 지음(김상섭 해설), 「하도와 낙서의 근본」, 『역학계몽』(예문서원, 1996), 87~158쪽 참고.

뇌풍산택(우레, 바람, 산, 못)은 ‘만물의 정(情)’에 속한다고 했다. 내가 보기
에, ‘신명의 덕’은 ‘길흉소장’을 말하는 것 같고, ‘만물의 정’은 ‘건순동지’를 말
하는 것 같다. 뇌풍산택의 상을 정(情)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지는 모르
겠다.²⁰⁾

이는 옥재 호씨가 경문에 대해 오독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팔괘
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설명하는 경문²¹⁾에 대한 옥재 호씨의 주석은 ‘건순
동지=신명의 덕,’ ‘뇌풍산택=만물의 정’으로 본 것이다. 이는 주자의 『주역본
의(周易本義)』에 있는 주석을 계승한 것이다.²²⁾ 그러나 김해는 ‘신명의 덕’은
‘길흉소장’이고, ‘만물의 정’이 ‘건순동지’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호재
호씨뿐 아니라 주자의 주석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²³⁾ 옥재 호씨에 대한
비판은 경문에 대한 오독뿐 아니라, 철학적 논리에 대한 것에도 이어져 있다.

옥재 호씨는 “易有太極”에 대한 주석에서 “획전지역(畫前之易, 괘획을 그
리기 이전의 역)은 하나의 태극일 뿐이다”라고 했다.²⁴⁾ 이에 대해 김해는
비판한다.

‘상수미형이기리이구’와 ‘획전유역’은 같지만 같지 않은 것이 있다. ‘상수미
형이기리이구’는 조화의 원리를 순수하게 가리킨 것이며, ‘획전유역’은 리(理)

20) 『易學啓蒙覆譯』「原卦劃」. 楷按類謂以其類辨之也, 猶言類族類物也. 玉齋以健順動止, 屬乎神明之德, 以雷風山澤, 屬乎萬物之情. 以愚見之, 神明之德, 似謂吉凶消長, 萬物之情, 似謂健順動止, 而雷風山澤之象, 不可以情言之, 未知何如.

21) 『周易本義』「繫辭下傳」2장. 古者包犧氏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 與地之宜, 逆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22) 『周易本義』「繫辭下傳」2장의 주석. 神明之德, 如建順動止之性, 萬物之情, 如雷風山澤之象.

23) 김해의 주장은 채원정의 주장과 유사하다. 채원정은 “성인이 그린 괘는 정밀하게는 신명의 덕에 통할 수 있고, 거시적으로는 만물의 상태를 분류할 수 있다”고 주석하고 있다. 팔괘는 무형적으로는 신명의 덕과 소통하고, 유형적으로는 만물을 분류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형적인 측면이 어떤 것인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이는 筮占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24) 『易學啓蒙覆譯』「原卦劃」. 玉齋胡氏曰. 畫前之易, 一太極耳. 橫圖所該儀象卦以至六十四者, 皆自此而生也.

와 수(數)를 겸한 것이다. 획을 긋기 전에 이 리와 수가 물상에 드러난 것은 하나인 것처럼 존재하나, 다만 획이 출현하지 않았을 뿐이다. 생각건대 이치가 이미 있으니 ‘역유태극, 시생양의, 양의생사상, 사상생팔괘’가 찬연한 것이며, 그 수가 이미 있으니 ‘상천, 법지, 근취저신, 원취저물’이 본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자는 ‘획전유역’을 여기 첫 장의 주에 두었고 다시 인용하지 않은 것이다. ‘역유태극’의 옥제 호씨의 주에서 ‘일태극’으로 지목한 것은 온당하지 못한 듯 하다.²⁵⁾

김해는 태극과 상수(象數)의 관계에 대한 주자의 표준적 해석인 “태극이란 상과 수가 아직 형체를 갖지 않았으나, 그 리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을 가리킨다(太極者, 象數未形而其理已具之稱)”는 명제를 옥제 호씨가 “획전유역”과 등치하는 것을 리기(理氣)관계에 대한 논리에 결함이 있는 것이라 보았다. 김해는 ‘상수미형이거리어구’는 ‘리기불상잡(理氣不相雜)’에 해당하고, ‘획전유역’은 리와 수를 겸한 것이라 ‘리기불상리(理氣不相離)’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 옥제 호씨의 주석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리기의 불상잡과 불상리에 대한 미묘한 인식이 없음을 비판한 것이다. 앞서 주자철학의 원론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주자가 팔괘의 생성원리인 ‘가일배법(加一倍法)’에 보인 무한한 신뢰를 보증하려는 주석적 태도가 있다. 또한 현재 『역학계몽복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변점」에 대한 기록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아, 「고변점」은 미완보다는 망실되어 성서(成書)되지 않은 것이라는 추측도 들게 한다.

이 주석의 요점은 소강절의 가일배법이 초연수(焦延壽, 前漢 미상)의 괘변(卦變)과 비교되지만, 그것은 팔괘에서부터 4096괘로 전개되는 역도(易道)의 무궁한 전변이라는 면에서 비교될 수 있을 뿐, 전자는 획괘원리이고 후자는

25) 『易學啓蒙覆繹』「原卦劃」. 按象數未形而其理已具者, 與畫前有易同, 而頗有不同者, 象數未形而其理已具者, 純指造化之理也, 畫前有易者, 兼指理與數也. 雖畫卦之前, 此理此數之形於物象者亦一樣, 但未畫出耳. 蓋其理已有, 極生儀儀生象象生卦之粲然者, 其數已有, 象天法地取身及物之可則者, 故朱子以畫前有易, 置於首章之註, 而不引. 於易有太極之註中, 玉齋以一太極目之, 似未穩當.

괘변론(卦變論)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한다.²⁶⁾ 이 또한 주석의 엄밀한 이해를 통해 주자의 역철학적 전제를 보존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합성에 대한 탐구는 주자의 글에도 적용되어, 주자의 비일관성을 지적하는 데까지 이른다. 주자보다 더 철저한 주자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자는 “태극, 양의, 사상, 팔괘가 생겨나온 차례, 위치 및 종횡으로 이루어진 배열에는 결코 어떠한 안배도 하지 않았지만 환하게 드러나는 순서가 있다. 네 번째로 나뉘어 16개가 되고, 다섯 번째로 나뉘어 32개가 되며, 여섯 번째로 나뉘어 64괘가 되는 것들에 이르더라도 그렇게 말미암아 중복함이 결코 어떠한 의도된 기획에 따라 미루어 안배된 것이 아니지만, 이전의 세 번 나뉜 것들(*태극, 양의, 사상)과 딱 들어맞는다”²⁷⁾라고 했고, “세 양효를 아울러서 누적하여 겹치면 (팔괘의) 건괘가 되고 세 음효를 연이어 중첩하면 (팔괘의) 곤괘가 된다. 그러나 뒤에 의도에 따라 이 둘을 엮갈리게 뒤섞어 여섯 자식을 얻는다. 또 먼저 안에다 팔괘를 그리고 다시 밖에다 팔괘를 그리되 돌아가며 서로를 올려놓으면 64괘가 된다. 이는 천리의 저절로 그러함에서 나온 것이며 인위의 조작과는 같지 않다”²⁸⁾라고 했다. 이에 대한 김해의 비판은 주자의 견해와 완전히 다르다.

“딱 들어맞는다”라고까지 말한 것은 천리(天理)의 저절로 그러함이며, “세

26) 『易學啓蒙覆釋』「原卦劃」. 第四篇者, 考變占篇也. 其法亦以六十四相乘爲四千九十六, 而與此不同, 此則六十四卦各生十二畫者, 各六十四卦合爲四千九十六卦矣. 考變占例, 則六十四卦各變爲六畫卦者, 各六十四卦亦合爲四千九十六卦, 雖同爲四千九十六而其實, 則此以一分爲二之法生之, 而爲四千九十六, 彼以變陰變陽之法變之, 而爲四千九十六, 其法不同, 而曰略見者, 以見易變易之無窮者, 與此略同也. 전자는 ‘획전지역’으로 先天易이고, 후자는 後天易에 속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27) 『易學啓蒙覆釋』「原卦劃」. 太極兩儀四象八卦生出次第位置行列, 不待安排而粲然有序. 以至於第四分而爲十六, 第五分而爲三十二, 第六分而爲六十四, 則其因而重之, 亦不待用意推排, 而與前之三分焉者, 未嘗不脗合也. 이 주자의 주석은 「答林黃中」의 내용이다.

28) 『易學啓蒙覆釋』「原卦劃」. 比之并累三陽以爲乾, 連疊三陰以爲坤, 然後以意交錯而成六子, 又先畫八卦於內, 復畫八卦於外, 以旋相加而爲六十四卦者, 其出於天理之自然, 與人爲之造作, 蓋不同矣.

양효를 아울러서 누적하여 겹치면” 이하 말한 것은 인위의 조작이다. 생각건대 일분위법(*가일배법)은 억지로 생각한 것이 아니니, 첫 번째로 나뉘어 양의가 되고, 두 번째로 나뉘어 사상이 되고, 세 번째로 나뉘어 팔괘가 되고, 네 번째로 나뉘어 16이 되고, 다섯 번째로 나뉘어 32가 되고, 여섯 번째로 나뉘어 64가 되는 것은 저절로 그러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천리의 저절로 그러함이라 했고, 아울러 누적하고 연이어 겹쳐서 건과 곤이 되는 것은 의도로써 섞어 육자가 된 것은 처음부터 법상(法象, 본받아 형용한 상징)의 저절로 그러함이 아니며, 또 괘의 선후 순서도 없다. 먼저 팔괘를 굿고 다시 팔괘를 그어 돌아가며 서로를 더하면 64가 되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인위의 조작이라 한다.²⁹⁾

김해는 선천역의 가일배법에 의한 획괘는 주자와 같이 ‘천리의 자연’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건곤(乾坤)에서 육자(六子)를 구하고, 팔괘를 내외괘(內外卦)로 하여 64괘를 만드는 이른바 인중설(因重說)조차 천리의 자연이라는 것에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것은 인위의 조작, 말하자면 인지가 이미 개입한 조작적 형식의 결과물이다. 전자가 선천역이라면 후자는 후천역이다. 이러한 김해의 태도는 주자에 대한 무비판적인 추수가 아니라, 주자의 글이라도 이치에 맞지 않다면 부정하는 비판적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해의 비판적 태도는 세조가 지은 『요해』에 대해서도 여김이 없다. 이와 연관되어 있는 김창흡의 질의에 대한 답을 살펴보자.

『요해』는 ‘진괘에서부터 리괘, 태괘, 건괘 등의 순서를 좌선이라 하고, 손괘에서부터 감괘, 간괘, 곤괘 등의 순서를 우행이라 여겼는데,³⁰⁾ 이는 주자의 본래 뜻이 아닌 것 같다. 주자의 뜻은 진괘 이하의 4괘는 왼쪽 방향으로 운행하

29) 『易學啓蒙覆釋』「原卦劃」. 未嘗不脗合以上, 爲天理之自然, 比之并累三陽以下, 爲人爲之造作. 蓋一分爲二之法, 不待用意排定, 而一分則爲兩儀, 二分則爲四象, 三分則爲八卦, 四分則爲十六, 五分則爲三十二, 六分則爲六十四, 自然而然, 故謂之天理之自然, 并累連疊而爲乾坤, 以意交錯而爲六子者, 初非法象之自然, 而又無卦次之先後, 先畫八卦, 復畫八卦, 以旋相加而爲六十四者, 亦然, 故謂之人爲之造作矣.

30) 『易學啓蒙覆釋』「原卦劃」. 要解, 以圓圖觀之, 則自震次離次兌次乾, 是左旋也 … 以圓圖觀之, 則自巽次坎次艮次坤, 是右旋也.

기 때문에 좌선이라고 했고, 손괘 이하의 4괘는 오른쪽 방향으로 운행하기에 우행이라고 한 것이다. 만약 괘의 순서로 말한다면, 왼쪽과 오른쪽의 여덟 괘들은 모두 순행이다. 어찌 왼쪽은 순(順)이라 하고 오른쪽을 역(逆)이라 여길 수 있는가! 생각건대 순천(順天)과 역천(逆天)이라는 설은 이해하기 어려운 설이다. 주자는 천도가 우행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네 괘는 오른쪽으로 운행하여, 마치 역천하여 운행하는 것은 건강부회의 뜻인 것 같고, 소자(邵子)의 본의가 아닌 것 같다.³¹⁾

『요해』의 주석은 선천도의 「원도(圓圖)」에 대한 주자의 주석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김해는 이를 비판한다. 비판의 골자는 좌순우역(左順右逆)의 의미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원도」에서 등장하는 좌선(左旋)과 우행(右行)이라는 표현은 주자가 ‘천문가의 용어와 다르게 그 그림에서 북쪽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것이 좌(左)이고, 남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것이 우(右)’라고 한 것처럼, 천체의 운행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순천(順天)과 역천(逆天)이라는 표현도 ‘천도는 좌선’이라는 천문가의 일반적 인식을 비유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김해의 주장이다. 이것이 『요해』의 주석에 대한 비판의 요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들을 종합해서 자신의 설을 개진한다.

내 생각은 이렇다. 순천이라는 것은 건괘 이하의 세 괘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니, 이는 건(乾)을 향해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순천하여 좌선한다고 했다. 역천이라는 것은 손괘 이하의 세 괘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니, 이는 건(乾)을 등지고 운행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역천하고 우행한다고 했다. 생각건대 남쪽은 건(乾)의 자리이고 건은 하늘이기 때문에 이른바 순역이라는 것은 모두 건을 위주로 해서 말한 것이니, 존양(尊陽)의 뜻이다.³²⁾

31) 『易學啓蒙覆釋』「原卦圖」. 要解之以自震次離次兌次乾爲左旋, 以自巽次坎次艮次坤爲右行者, 恐非朱子之本意. 朱子之意則以震以下四卦行於方之左, 故謂之左旋, 以巽以下四卦行於方之右, 故謂之右行. 若以卦次言之, 則左右八卦皆順行也, 安可以左爲順, 以右爲逆也. 蓋順天逆天之說有難解說, 朱子之謂天道非右行, 此四卦, 行於方之右, 若逆天而行者, 似有牽強之意, 恐非邵子之本意.

김해는 ‘좌선’과 ‘우행’을 「원도」의 구조에서 설명하고, ‘순천’과 ‘역천’을 건위(乾位)를 중심으로 생겨난 표현으로 해석한다. 패가 생겨나는 순서는 ‘건-태-리-진 … 곤’이지만, 이것을 원도로 배열하면 ‘진-리-태-건 … 곤’의 순서가 된다. 건이 시작이 아니라 진(震)이 시작이 된다. 이는 실제 동지(冬至)로부터 봄을 거쳐 건의 여름으로 진행되는 천도(天道)의 실제 상황을 「원도」가 반영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좌선’이다. 그러나 「계사전」에서 “수왕자순(數往者順)”의 순(順)은 “왕자” 즉 「황도」 기준으로 ‘이미 먼 저 생겨난 패의 순서’를 지나가는 것이므로, 좌선은 곧 순(順)이다.

김해는 이러한 설명 대신에 건위를 기준으로 진에서는 다가가므로 ‘순천’이고, 건위를 지나 손(巽)에서 곧까지는 건위에서 멀어지므로 ‘역천’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의 철학적 근거는 ‘존양’이라고 보았다. 「원도」의 진에서 시작하는 철학적 기조도 진의 동지 일양(一陽)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므로 존양이고, 순천과 역천의 표현도 이를 반영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설은 참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 초고를 열람한 김창흡은 이에 대한 비판하고 있다.

향건(向乾)과 배건(背乾)을 순역(順逆)으로 보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신선했을 설 같지만, 치우치고 고루한 설이다. 이제 건을 남쪽 자리에 배치하고 그 나머지 패들을 세는 것은 좌삼(左三)과 우삼(右三)이 되어 세가 가지런히 정돈되지 않고 건(乾)을 합해서 세면 좌(左)는 모두 4패가 되니, 건(乾) 외로 별도의 건(乾)이 있는 것이라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게다가 역(逆)은 영(迎)이라는 뜻이고, 영(迎)의 뜻에는 좋고 나쁨이 한결같지 않고, 그 향해 나가는 기세와 따르고 거스르는 모양이 되니 여러 고어들에서 증명하면 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역격(逆擊, 맞받아 침), 역려(逆旅, 나그네를 맞음), 역류(逆流, 흐름을 거슬러 오름), 역풍(逆風, 바람을 안음)이라고 하는 말들에서 뜻을 단순하게 쓰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양(陽)이 음(陰) 속에 있어

32) 『易學啓蒙覆繹』「原卦劃」. 愚意則謂順天者震以下三卦, 自北而南, 是向乾而旋來也, 故謂順天而左旋也, 逆天者巽以下三卦, 自南而北, 是背乾而行往也, 故謂逆天而右行也. 蓋南是乾位, 乾是天也, 故所謂順逆者, 皆主乾而言, 尊陽之義也.

서 양(陽)이 역행하면 분명히 이는 역류나 소회(거슬러 돌아감)의 모양이다. 이를 살펴보면 등 돌려 간다는 것을 역(逆)으로 볼 수 없음이 또한 명백하다.³³⁾

김창흡의 비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건위를 중심으로 보면 진, 리, 태, 건 등이 있는 왼쪽(「원도」기준)에는 건을 제외한 3개의 괘가 되고, 오른쪽에는 손, 감, 간, 곤 등의 4괘가 있게 되어 균형이 깨지고, 건을 포함하면 왼쪽에는 중심이 되는 건과 4괘에 소속되는 건이 고려될 수 있으니, 이는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을 김해는 수용해서 ‘좌3우3’의 괘로 정리했다고 한다(아래 인용 참고). 두 번째는 역천(逆天)의 역(逆) 자가 ‘거스르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뜻이 있는데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비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두 번째 비판은 역리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 것 같다. 김해도 이를 의식하고 다음처럼 답한다.

내 생각은 이렇다. 여러 주석에서 “순천과 역천”은 다만 “순과 역”의 뜻을 푸는데 힘을 쓰고, “천” 자에는 해석한 바가 없다. 주자는 “道左旋, 此四卦旋於方之左, 若順天而行”이라 하고, 또 “天道非右旋(*右行), 此四卦行於方之右, 若逆天而行”이라 했다. 이는 “천” 자의 뜻을 해석하면서 좌우의 괘가 모두 천도의 운행을 따를 뿐인 것이지, 어찌 우를 역이라고 한 것인가? 그래서 주자는 방위의 좌우로 말한 것이고, 방위의 좌우를 나누고, 천도의 순역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어의와 문리가 모두 통쾌하지는 않아, 마치 견강부회인 것처럼 보인다. 내가 천을 건으로 본 것은 문의를 간과한 것이고 건곤을 모두 들어서 말한 것은 과연 착오이다. 건곤이 상하에 정위한 것이 어찌 육자가 오고가는 것과 같겠는가. 이제 “진 이하 3괘, 손 이하 3괘”로 고치니 치우치고 고루한 병통이 없고 어의가 만족스럽다. 역이 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배자

33) 『易學啓蒙覆譯』「原卦劃」. 三淵曰. 以向乾背乾爲順逆, 乍見雖似生新而實, 則未免偏枯. 今若將置乾於南位而數其餘卦者, 則左三右四勢不齊整, 併乾而合數通謂之左四卦, 則乾之外將別有乾, 未知誰爲所而誰爲能乎. 且逆之爲言迎也, 迎之道, 好醜不一, 而其爲衝向之勢與延溯之象, 則證諸古語無不皆然, 其曰逆擊逆旅逆流逆風等語, 可見其不苟用, 如陽在陰中, 陽逆行, 分明是逆流溯回之象, 觀此則其不可以背而去之爲逆也, 亦明矣.

의 뜻만이 있다. 노비가 상전을 배반하고 신하가 군주를 배신하는 것이 어찌 영의 뜻이 있다고 역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하물며 이 장이나 대전, 여러 주석들이 모두 역자로 해석하니 모두 영합의 뜻이 없음에랴!³⁴⁾

김해는 주자의 표현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위를 중심으로 순천과 역천을 해석했다. 이 과정에서 꽤 좌우로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건위를 제외하고 ‘좌3우3’로 육자 괘를 나누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건곤정위의 관점에서 건위를 중심으로 하면서 곤위 또한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존양의 뜻이 일관되게 적용되려면 다시 논의가 첨가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역을 영(迎)으로 풀이하는 김창흡의 해석은 다소 억지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앞서 김창협과 여기 김창흡의 의문은 각 한 건씩인데, 적은 수지만 김해가 이러한 논변을 통해서 『역학계몽』을 연구했음을 보여준다.

4. 「명시책(明蓍策)」 주석

「명시책」은 「계사전」의 ‘대연지수’장을 근거로 해서 점치는 방법 즉 설시법(揲蓍法)을 해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자 당시에 설시법은 정확한 내용이 전해지지 않았다. 주자는 서점(筮占)이 기록이 남은 춘추시대 문헌을 연구하면서 서점의 방식을 재구성하고 있다. 시책(蓍策)이란 시초를 가지고 그 수를 셈하여 괘를 얻는 수리적 절차와 의미를 뜻한다. 시초의 수 50

34) 『易學啓蒙覆釋』「原卦劃」, 愚謂諸註釋順天逆天, 而只於順逆上多費力, 於天字上無所解釋. 朱子曰天道左旋, 此四卦旋於方之左, 若順天而行, 又曰天道非右旋, 此四卦行於方之右, 若逆天而行, 此則釋天字之義, 而但左右卦皆順天道行, 何以謂右爲逆乎, 故朱子以方之左右言之, 分方之左右而以天道之順逆釋之, 語意文理皆不通快, 似若牽強. 鄙見之以天作乾看過最近文義, 但鄙語之盡舉乾坤者, 果是錯誤, 乾坤定上下之位, 安得與六子同其去來耶, 今改之曰震以下三卦, 巽以下三卦, 則無偏枯之病, 而語意恰好矣. 逆之爲迎, 非不知之, 而亦有專作背字之意, 如奴之背主, 臣之背君, 有何迎意而謂之逆乎, 況此章通大傳及註解多逆字, 皆無迎合之義乎.

개, 사용하는 시초의 수 49와 제외하는 1개의 의미, 사상수의 의미 등을 논의하고 있다.³⁵⁾

이 편의 주석 방향은 주자가 설시법을 재구성하면서 펼치는 논리에 대한 정밀한 이해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전 편들에서처럼 주자의 논리를 부연하고 강화하지만, 논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여지없이 비판하며, 새로운 이해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관건은 설시법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자 전제가 되는 ‘대연지수’에 대한 수리적 이해와 설명에 대한 것이다.

주자는 ‘대연지수’에 대해서 「하도」와 「낙서」의 수리를 통해서 설명한다. 「하도」에 대해서는 “1은 5를 얻어 6을 이루고, 2는 5를 얻어 7을 이루며, 3은 5를 얻어 8을 이루고, 4는 5를 얻어 9를 이루며, 5는 5를 얻어 10을 이룬다. 그러나 이 5가 없다면 50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겠는가?”³⁶⁾라고 해서 중수(中數)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중수의 근거는 「낙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주자는 “1·6은 ‘같은 종족[共宗]’으로 태양의 위(位)와 수(數)가 되고, 2·7은 함께 벗[共朋]을 삼아 소음의 위와 수가 되며, 3·8은 벗을 이루어[成友] 소양의 위와 수가 되고, 4·9는 같은 길을 가는 사이[同道]로 태음의 위와 수가 된다. 그러니 이 5라는 수를 얻지 못한다면 어찌 이 40을 이룰 수 있겠는가?”³⁷⁾라고 하여 중수가 대연지수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하였다. 그런데 김해는 이러한 주자의 설은 실제로 옥재 호씨와 같다는 것을 말한다.

이 (주자의) 소주의 사상(四象)의 위(位)와 수(數)를 분배하는 설은 옥재 호씨의 설과 가깝다. 그러나 후대의 유자들은 유독 심하게 옥재 호씨를 공격하는데 애석하다. 단지 주자는 위(位)를 따라 1·6을 태양으로 하고, 2·7은 소음, 3·8은 소양, 4·9는 태음으로 생각한다. 옥재 호씨는 수(數)를 따라서 1·6을 태

35) 주희 지음(김상섭 해설), 「하도와 낙서의 근본」, 『역학계몽』(예문서원, 1996), 159~158쪽 참고.

36) 『易學啓蒙覆釋』「明蓍策」. 一得五而成六, 二得五而成七, 三得五而成八, 四得五而成九, 五得五而成十, 無此五數, 則五十者, 何自來耶.

37) 「明蓍策」. 一六共宗而爲太陽之位數, 二七共朋而爲少陰之位數, 三八成友而爲少陽之位數, 四九同道而爲老陰之位數, 不得此五數, 何以成此四十耶.

음으로 여기고, 2·7은 소양, 3·8은 소음, 4·9는 태양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주자와 매우 다른 점이다. 옥재 호씨의 설은 이미 상권에서 해석했고, 주자의 설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데, (이 설은) 5를 바탕으로 해서 한 것이다. 그러므로 1은 태양의 위(位)가 되고, 5에 바탕해서 6을 얻어 그 수가 된다. 2는 소음의 위이고, 5를 바탕으로 해서 7이 되어 그 수가 된다. 3은 소양의 위가 되며 5를 바탕으로 8을 얻어 그 수가 된다. 4는 태음의 위이고 5를 바탕으로 해서 9를 얻어 그 수가 된다.³⁸⁾

옥재 호씨는 후대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의 설이 주자의 설과 다른 곳이 많고, 이설을 제시했기 때문이다.³⁹⁾ 김해도 간간히 옥재의 설을 비판하고 있지만, 옥재 호씨가 모든 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특히 사상과 팔괘에 대한 수리에 있어서는 주자를 확실하게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김해는 옥재 호씨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후대의 역학자들은 세심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후대 역학자들이 옥재 호씨를 비판한 것은 위에서처럼, 주자가 1과 6을 태양으로 하고, 2·7은 소음, 3·8은 소양, 4·9는 태음으로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르게, 1·6을 태음으로 여기고, 2·7은 소양, 3·8은 소음, 4·9는 태양으로 본 것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수(數)와 위(位)의 관점 차이에서 연유한다.

말하자면, 주자는 ‘가일배법’에 의해서 사상이 생겨날 때, 태양의 위(位) 1을 기준으로, 소음(2), 소양(3), 태음(4)로 본 것이다. 그런데 옥재 호씨는 ‘설시법’에 의한 6·7·8·9의 수를 중심으로 보았다. 그래서 태음(6), 소양(7), 소음(8), 태양(9) 등이 된 것이다. 주자는 위(位)를 중심으로 옥재 호씨는 수

38) 「明蓍策」, 按此少註四象位數分配之說, 則與玉齋之說近, 而後儒獨深攻玉齋可惜, 但朱子則從位而以一六爲太陽, 二七爲少陰, 三八爲少陽, 四九爲太陰, 玉齋則從數而以一六爲太陰, 二七爲少陽, 三八爲少陰, 四九爲太陽, 此大異於朱子, 玉齋說則已釋於上卷, 朱子說則蓋方說因五而言之, 故一爲太陽位, 而因五得六爲其數焉, 二爲少陰位, 而因五得七爲其數焉, 三爲少陽位而因五得八爲其數焉, 四爲太陰位而因五得九爲其數焉也.

39) 김해(1633~1716) 보다 50년 연하인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은 옥재 호씨가 ‘역을 모른다’고 격하게 비판한다. 『경의기문록(經義記聞錄)』 참고.

(數)를 중심으로 사상을 해석한 것이다.

옥재의 사상과 팔괘의 설은 주자와 같지 않다. 주자의 관점은 매번 “호장기택(互藏其宅, 음양이 서로의 집에 간직되어 있음)”으로 말한다. 옥재의 관점은 매번 “기우동처(홀수와 짝수가 함께 하는 것)”로 해석한다. 주자의 호장기택으로 말하면 1은 태양의 위(位)이고 (中數) 5를 얻어 6이 되니, 태음의 수(*설시법의 태음수는 6)가 된다. 2는 소음의 위(位)이고 5를 얻어 7이 되니 소양의 수가 된다. 3은 소양의 위(位)이고 5를 얻어 8이 되니 소음의 수가 된다. 4는 태음의 위(位)이고 5를 얻어 9가 되니 태양의 수가 된다.⁴⁰⁾

‘호장기택’이라는 것은 주자가 위와 수에 근거해서 사상에서 팔괘가 생성될 때 태양(노음)의 자리에 태음(노음)이 있고, 소음의 자리에 소양이 있는 것처럼, 서로의 자리 즉 집을 바꾸어서 있는 모습을 가리킨다. 이러한 논리에는 1) 「하도」의 수리, 2) 가일배법에 의한 「형도」와 「원도」의 수리, 3) 설시법의 수리 등을 배합해서, 「하도」와 팔괘의 방위(「선천원도」)를 일치시키려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여기에 주자의 이른바 석합보공론(析合補空論)이 등장한다. 사상에서 팔괘로 진행하면서, 사상 단계에서 합쳐진 것을 쪼개서[석합] 팔괘의 건곤감리는 사방(四方)에 놓고, ‘비워진 채로 있는 사우(四隅)에는 나머지 4괘를 채운다’[보공]는 논리이다.

주자가 “동서남북 네 방위에 합친 채로 있는 것들을 쪼개 건곤감리로 하고, 네 귀퉁이의 빈 곳을 채워 태진손간으로 한 것이 팔괘이다(析四方之合補四隅之空以爲八卦也)”는 매번 위(位)와 수(數)로 나는 것이다. … 주자는 위수로 나누기 때문에 일찍이 “태양의 위(位)는 1에 거쳐하고 수(*설시)는 9이다”라고 하므로, 건은 그 수를 얻고 태는 그 위를 얻는다. 소음의 위는 2에 거쳐하고 수는 8(*설시)이므로 리괘는 그 수를 얻고 진괘는 그 위를 얻는다. 소양의 위

40) 「本圖書」. 按玉齋四象八卦之說, 與朱子不同. 朱子之觀 … 則每以互藏其宅言之, 玉齋之觀 … 則每以奇偶同處釋之. 朱子以互藏其宅言之, 則一是太陽之位, 而得五爲六, 則爲太陰之數, 二是少陰之位而得五爲七, 則爲少陽之數, 三是少陽之位而得五爲八, 則爲少陰之數, 四是太陰之位而得五爲九, 則爲太陽之數.

는 3에 거처하고 수는 7이므로 감괘는 그 수를 얻고 손괘는 그 위를 얻는다.
태음의 위는 4에 거처하고 수는 6이므로 곤괘는 그 수를 얻고 간괘는 그 위를 얻는다.⁴¹⁾

예컨대, 가일배법에 따르면 태양의 위는 1이고 수는 9이다. 수는 설시법의 노양수이다. 태양에서 건(乾)과 태(兌)가 분화하는데, 건은 수(數)를 얻고 태는 위(位)를 얻으므로, 「하도」의 서쪽 9에 건이 배합되고, 태는 북쪽 1의 자리에 놓인다. 소양의 위는 3이고 수는 7이다. 소양에서 감과 손이 분화하는데, 감은 수를 얻고 손은 위를 얻으므로, 「하도」의 남쪽 7에 감이 가고 동쪽 3에 손이 간다. 이처럼 팔괘에 수와 위가 배당되면, 사방과 사우에 팔괘가 자리잡는다. 하지만 이것은 선천 「원도」와 전혀 같지 않다. 건은 남쪽에 있는데 오히려 서쪽에 있고 감은 서쪽에 있어야 하는데 남쪽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양의 건과 소양의 감이 자리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며, 간과 태가 자리를 바꾸고, 진과 손이 자리를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진손은 소양(2)과 소음(3)이며, 간(4)과 태(1)는 태음과 태양이다. 곧 ‘호장기택’이 된다. 위를 얻은 괘는 사우로 배치된다. 이렇게 되면 사방의 건(9)과 곤(6), 리(8)와 감(7) 등이 되며 그 수의 합은 15이다. 이와 달리 사우의 태(1)와 간(4), 손(3)과 진(2) 등이 되며 그 수의 합은 5이다. 그런데 1234는 중수에 의해서 6789가 되므로, 실제의 합은 사방과 사우가 모두 5가 된다. 이처럼 수가 조화를 이루고 8괘의 상도 이를 반영하여 번역의 관계에 놓이면서 조화의 상을 짓는다. 옥재 호씨의 설은 주자의 위수분괘(位數分卦)와 다르다.

옥재의 설은 “기우동처로 해석하면 6은 1이 5를 얻은 것이므로 궁(宮, 자리)을 같이 하여 하나의 상이 된다. 7은 2가 5를 얻은 것이므로 궁을 같이 하여 하나의 상이 된다. 8은 3이 5를 얻어 궁을 같이 하여 하나의 상이 된다. 9는 4가 5를 얻어 궁을 같이 하여 하나의 상이 된다. 그 주에 “老陰居

41) 朱子之析四方之合補四隅之空以爲八卦也，則每以位數分之，… 朱子以位數分之故嘗曰太陽之位居一，而數則九，故乾得其數而兌得其位，少陰之位居二而數則八，故離得其數而震得其位，少陽之位居三而數則七，故坎得其數而巽得其位，太陰之位居四而數則六，故坤得其數而艮得其位。

北, 少陰居東, 老陽居西, 少陽居南”라는 것이 이 뜻이다.⁴²⁾ 옥재 호씨는 노음=6(1)=북, 소음=8(3)=동, 노양=9(4)=서, 소양=7(2)=남 등으로 본 것이다.

가일배법에 따라 패가 생겨나는 위수(位數), 「하도」와 「낙서」의 수, 설시의 사상수 등은 모두 ‘수’이지만, 위(位)를 수(數)로 간주하는 것은 일종의 논리적 범주의 오류로 비판받을 수 있다.⁴³⁾ 그러나 ‘상수적 사고방식’은 이러한 범주적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호장기택’ ‘석공보합’ ‘위수분배’ 등의 논리는 역설과 모순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선천역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진 주자의 수론은 다양한 시기와 맥락에 걸쳐서 다른 수론을 전개한다. 이를 김해는 일관성 있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주자의 수론에 일관성을 획득하는 것은 선천역의 일관성을 보증하는 것이며, 이는 『계몽』의 존재이유인 선천역 이론의 무모순성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주자의 논리를 보강하거나 비판하기도 했던 것이다.

IV. 결론

김해의 주석 방향은 주자의 논리를 부연하고 강화하는 원론적인 방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주자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에 의해서 주자의 학설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설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주자의 논리에 정합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석을 진행한다. 그러나 정합성이 보존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리를 통해서 새로운 설을 주장한다. 또한 김해는 세조의 『요해』도 논리를 기준으로 삼아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점을 보면 김해는 권위에 의존한 주석이 아닌 논리 즉 역리에 입각한 논리에 의해서 주석을 진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42) 玉齋以奇偶同處釋之, 則六是一之得於五者, 故同宮而爲一象焉, 七是二之得於五者故同宮而爲一象焉, 八是三之得於五者故同宮而爲一象焉, 九是四之得於五者故同宮而爲一象焉, 其註之謂老陰居北, 少陰居東, 老陽居西, 少陽居南者, 卽此意也.

43) 이에 대한 비판은 선천역학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후일 빈번하게 등장한다.

김해는 당시 유자들과 교류를 통해서 자신의 주석 방향이나 학설에 대한 평가를 원했다. 전해진 것은 비록 적은 수지만 질의에 대한 응답을 펼치면서 수용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김해가 이견을 수용해 가면서 주석을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랜 세월 동안 개고를 거듭한 흔적이 곳곳에 보이는데, 이러한 개고의 과정에서 당시 유자들 간의 교류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복역』은 필사본의 형태로 여러 유자들에게 열람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고변점」이 현재 전해지고 있지 않은데, 성서가 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연구가 다른 편들의 주석 속에서 발견된다. 이황의 『전의』에 대해서는 저술 자체가 『계몽』의 난해한 곳에 대한 주석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자 이후 『계몽』의 이해에 전범이 되어 온 옥재 호씨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전개되고, 옥재 호씨의 논리를 넘어서는 독자적인 이해가 많았다. 주자의 역리에 대한 부연과 연역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정합성이 떨어지거나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새로운 학설을 제시했다.

김해가 리수(理數)와 상수(象數) 속에서 “천리의 자연”을 확인한 것은 그 자체의 진리 탐구이기 보다는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問學)이 결합된 도학의 본래적 방향을 따른 것이다. 주석은 리수 속에서 ‘천리의 자연’을 확인하고, 존비(尊卑)와 귀천(貴賤)의 상도(常道)를 말하는 경우가 간혹 보이는데, 이 역시 도학의 지향 속에서 리수의 학을 탐구한 것이라 보인다. 이에 대해서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해의 리수에 대한 연구는 고독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학문의 고독이 아니라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고독이다. 김창협이 『복역』을 보고 난 뒤에 쓴 편지글이다.

감히 이 책의 대체를 논해 보자면, 사색의 깊이와 고증의 정밀함이 비단 오늘날에 찾아보기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옛사람도 도달하지 못한 수준이었으니, 역학에 도움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 도리어 한쪽에 엮매이고 막히는 문제가 생기

고 설명이 너무 상세하여 인위적으로 안배하고 억지로 끌어다 붙인 흔적을 면치 못하였으니, 그 결과 고명하고 간결하며 막힘 없고 온화한 감이 부족합니다. 이치를 설명한 것이 수(數)를 설명한 것보다 못하고 문장이 견해에 부합하지 못한 것은 옥의 티가 될 듯하니, 만일 더욱 수정하고 윤색하여 완전해진 뒤에 책을 낸다면 세상에 전해지고 후세에 전해지는 데에 있어 더욱 영구할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고명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⁴⁴⁾

편지는 김해의 저술이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한 쪽에 치우쳤다” “지나치게 상세하다,” 그래서 “自然而然”을 추구하는 김해가 원하지 않은 말인 “인위적인 안배” “전강부회”로 평가한다. 그리고 리수(理數)에 대한 유자들의 오랜 편견을 드러내고, “더욱 분발한다면 좋아질 것”이라는 문사(文士)의 미려(美麗)한 위로로 마친다.

『계몽』의 모든 주석과 조선의 주석(세조, 이황)을 검토한 뒤에 내리는 김해의 “해안(楷按)”은 논리를 동반한 매우 상세한 설명과 박학한 상수 지식을 통해서, 주자의 주석까지도 이치에 맞지 않으면 비판하고 대안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보기 드문 과감한 모습을 보여준다. 김해의 저술은 당시에도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상수를 탐구하는 김해는 리(理)에 가장 가까운 리수(理數)를 통해서 “천리를 보존”하려는 도학자의 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 이 논문은 2018년 7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8월 14일부터 9월 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9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44) 앞에서 김창협이 보낸 편지글 중간 부분. 『농암집』17권.

참고문헌

朱子, 『易學啓蒙』

朱子, 『周易本義』

李滉, 『啓蒙傳疑』

金楷, 『易學啓蒙覆繹』

김창협, 『농암집』 (한국고전번역원 DB)

김의묵 번역, 『국역 부훤당선생문집』, 부훤당공파 화수회, 2012.

김상섭 해설, 『역학계몽』, 예문서원, 1996.

이선경, 「퇴계학파의 『역학계몽』 이해」, 『양명학』28, 한국양명학회, 2011.

Abstract

The Philosophical Review on Kim Hae(金楷,
1633~1716)'s Yi Xue Qi Ment Fu Yi(易學啓蒙覆譯) :
Focusing on the systems and its contents

Lee, Chang-il

This paper is to aim at examining the system and its contents of Kim-Hae's Yi Xue Qi Meng Fu Yi, who was Yi xue Philosopher in the late Chosun and only recently begins to illuminate. This work is to annotate Yi Xue Qi Meng and Qi Meng Zhuan Yi which are the theoretical annotations on Yi xue interpreted by Neo-Confucianism. For the purpose of review, We shortly examine his whereabouts and the system of Yi Xue Qi Meng Fu Yi, and then investigate its annotative characteristics divided with three parts. The characteristics of his annotation follows the fundamental form to understand and reinforce the logic of Zhu-Xi. However, his annotative characteristics do not have the attitude of unquestioning acceptance, but the active manners to criticize the Zhu-Xi's theory, if there are logical fallacies on a reasonable basis, and to propose an alternative, then to give the coherence to the logic of Zhu-Xi. But if the logical coherence is not preserved, he suggests the new explanations through his own logic.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obvious for him to proceed the annotation on the ground of Yi's principle, which is based on the authority of

established annotation. Kim-Hae hoped to receive the other scholars' evaluations, which have the desirable annotations or theories on his own explanations through mutual exchanges among scholars at that time. Here, we research these exchanges in details.

key words

Kim-Hae(金楷, 1633~1716), Yi Xue Qi Meng Fu Yi(易學啓蒙覆繹), Yi Xue Qi Meng(易學啓蒙), Qi Meng Zhuan Yi(啓蒙傳疑), annotation, Yi's principle(易理)